

전남교육청, K-에듀파인 지원 나섰다

대표강사·멘토단 112명 대상 사용자 교육 실시

향후 회계업무 지도 등 1:1 맞춤형 컨설팅 예정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3월 전면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의 초기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일에서 21일 이틀 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및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K-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사용자 지원을 위한 지역 대표강사 및 멘토단 112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모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K-에듀파인시스템 사전점검 사항 안내,

업무관리 권한 관리, 사립유치원회계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했다.

당초 모든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방지를 위해 계획을 변경해 권역 별로 소인수(30명 이내) 그룹으로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에 대비해 손세정제를 준비하고 개인별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표강사를 지정하고 지역 별로 'K-에듀파인 멘토단'을 구성하는 등 사립유치원 및



총형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향후 멘토단은 회계 업무지도 및 예산 편성지원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진 예산정보과장은 "모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으로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시스템의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성 기자

2020 영암 마을교육공동체 첫 모임

영암교육청은 최근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 마을학교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영암 마을교육공동체 첫 모임을 운영하였다.

영암교육청은 2020년 [아프랑마을학교, 어울림마을학교, 학산가온 누리마을학교, 희문화창작공간마을학교, 예답은구방문화원미을학교] 5개 마을학교와 [모정마을작은도서관마을학교] 1개 중심마을학교(도교육청 선정)를 선정하여 양적팽창 보다는 질적성장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첫 모임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영암군청,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마을학교,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중심마을학교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추

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학교 협의 정례회를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8시로 지정 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중심마을학교가 주최가 되어 마을학교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마을학교 만의 고유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여 마을교사(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약속하였다. 중심마을학교 김창오 대표는 군의회 의원과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면담을 갖기로 하였으며, 영암군청과의 협의 체계도 만들어 영암의 아이들이 영암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이 앞장서자는 대표 발의도 하였다.

마을학교 교사는 "2020년 수요일 방과후 없는 날 지정으로 마을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학원이 아닌 마을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길러 아이들의 행복을 되찾아 주자."고 한 목소리로 다짐하였다.

나임 교육장은 "마을학교 활성화를 통한 교육경험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고,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 운영



장흥고등학교는 최근 3일간 운영하는 새 학년 사전 준비를 통해 2020.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운영하였다.

이번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

운영은 새 학년 사전 준비를 통해 3월 교육과정 정상화와 새 학년 초학교 수업과 학생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행사는 첫째 날은 전입 교사 소개, 학교 안내, 부서 및 교과별 협의회, 고교 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특강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은 학교 철학 및 비전 공유, 2020 학년도 주요 과제 토의, 부서 및 교과 별 사업 발표 대입 정책과 관련한 특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접경 관리에 대한 안내와 생활지도 역량강화와 관련한 특강, 교사 연수(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복무 및 청렴 교육)와

부장교사 워크숍 등이 실시되었다.

2020학년도에 장흥고등학교로 전입 온 교사 신OO은 "장흥고등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 특색활동과 고교 학점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학교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은 위와 같이 매우 내실 있게 운영되어 3월 이전 학교가 새 학년 준비를 마쳐 3월초 발생할 수 있는 교육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잘 살린 채 마무리되었다.

장흥=위지훈 기자

목포교육청, 진로직업체험교육 MOU

목포교육청은 최근 지역 대학 및 정부 공공기관 6개 기관과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립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보건복지부 국립목포병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목포검역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기획경제부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등이 참석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백문이불여일견! 꿈 찾아! 길 찾아'라는 주제로 미래 공무원이 되고 싶은 중학생들 430여명을 대상으로 1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진로직업체험의 달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서 공공기관 진로직업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목포교육지원청과 각 공공기관은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지역사회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등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 기관 진로직업체험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참여 학생 선발 및 이동차량 등 행·재정적 지원과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 소개 및 진로 경로, 현장 공무원 멘토와의 대화, 업무현장 체험, 진로직업체험 소감 나누기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재점 교육장은 "함께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행복하다"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진로교육 생태계가 탄탄해졌으며, 앞으로도 각 학교와 진로직업체험을 연계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화순초·제일중, 전국동계체육대회서 수상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스키 종목)에서 화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인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제일중학교가 참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화순 지역 학교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19일 경기에서 화순초 조다운(4년/금), 박수안(6년/은), 전다경(5년/동)이 알펜시아 크로스

컨티너센터에서 펼쳐진 크로스컨트리 3km 여자 13세 이하부에 출전해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다음날 이어진 크로스컨트리 복합종목에서도 화순초등학교 조다운(4년)이 금메달, 전다경(5년)이 은메달을 추가하며 다시 시상대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화순=박순철 기자

2020년도 9월 개교예정학교 교명 선정

오룡지구 내 2020년도 9월에 개교하는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에 대한 교명이 무안행복초등학교, 무안행복중학교로 선정됐다.

무안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30분 오룡지구 신설예정학교 교명을 선정하기 위해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공모를 통해 올라온 84건의 교명 중 일반인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램의 행복이라는 단어와 지역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 무안이라는 지명을 앞에 넣어 무안행복초등학교, 무안행복중학교로 선정됐다.

선정된 교명은 전라남도의 회심의를 거쳐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